
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4. 29.(월)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항공정책과	담당 자	·과장 김기대, 서기관 권미정, 주무관 김을 ☎ (044) 201-4024, 4181	
보 도 일 시	2019년 4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9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('20~'24년)을 마련하겠습니다.

- ◆ 국토부·연구기관 전문가 참여 전담조직 및 분야별 간담회 통해 과제발굴
- ◆ 국민참여, 소통을 통해 다음 5년의 항공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 선정
- ◆ 기술 융복합, 미래 항공교통 관리체계, 항공 일자리 창출방안 등 고민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동향 등 항공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('20~'24) 수립에 착수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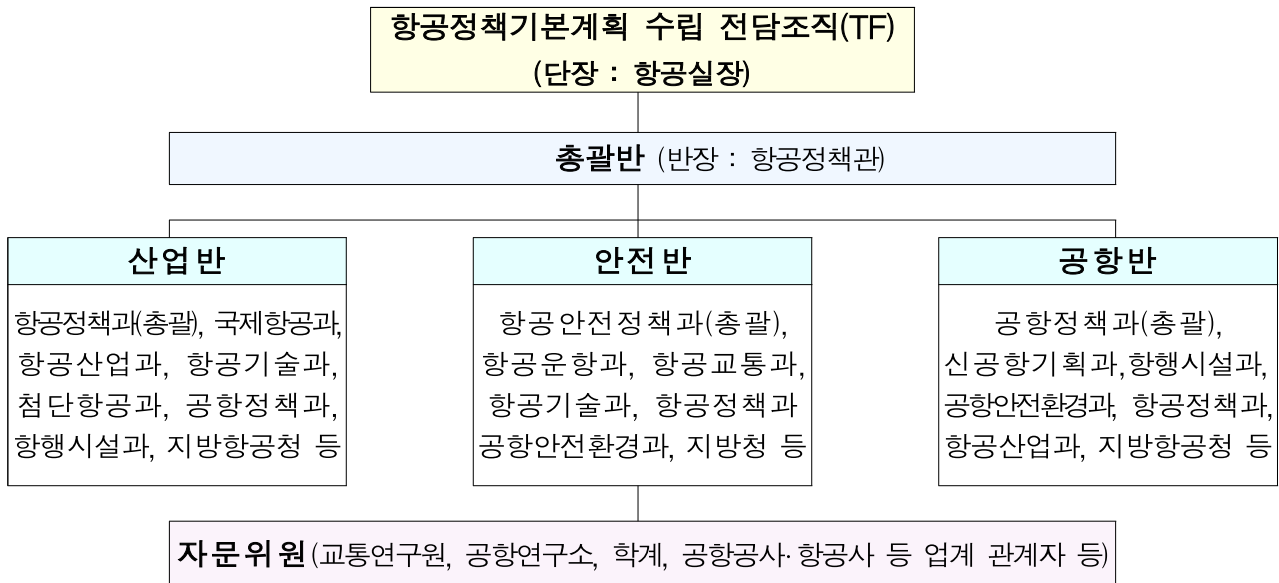
○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(제3조)에 따라 항공정책·안전·공항개발 등 항공분야 최상위 계획*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.

*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, 항공보안기본계획,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

○ 지난 '14.12월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('15~'19년) 수립 이후 항공 시장 성장 및 업계구조 변화, 4차 산업혁명 대두, 드론산업 부상 등 항공정책 환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.

- 국토교통부는 기술간·교통수단간 융복합화, 안전·보안에 대한 위협의 다양화 등 항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최신 흐름을 감안,
 - 각 분야간 칸막이 없는 유기적 연계체계 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담조직(TF)을 구성했다.
 - 전담조직(TF)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항공정책실 전 부서와 연구기관, 공항공사·항공사,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, 4.22(월)에 연구용역* 및 전담조직(TF) 착수회의(kickoff meeting)를 개최하였다.

*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('18.4~12월, 한국교통연구원)



- 착수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글로벌 항공시장 전망, 관광행태(pattern)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 등을 토대로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및 공항개발 방향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,
 - 유·무인 개인자가용항공기(PAV) 등 미래항공교통수단 상용화에 대비해 관제 등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,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관리 본격화,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등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아이템들이 제시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학계·업계·지자체 등 분야별로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하여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국민참여단을 구성*해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항공정책에 바라는 방향을 담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.

* “내가 다음 5년 항공정책의 설계자!”(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8월경 안내)

□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“항공산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으며,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”이라고 강조하며,

○ “다음 5년을 위한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동향을 반영한 비전 제시와 함께, 항공산업-안전-공항개발 방향이 유기적 연계속에 짜임새 있게 디자인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”하겠다고 밝혔다.

□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연구용역,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, 항공정책위원회 심의*를 거쳐 '19.12월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.

* 위원장(국토부 장관), 기재부·과기부·국방부 등 6개 부처 차관, 민간위원 13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권미정 서기관(☎ 044-201-41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